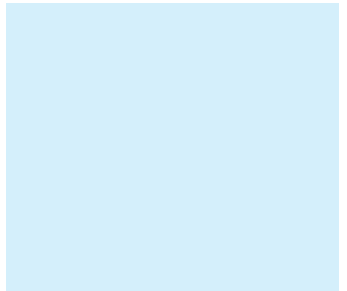


12
2020

재외동포의



특집 _ 세계 각국 한인사회의 수장들 한자리에... 세계한인회장대회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G20회의서 “백신 공평 보급” 역설
 초점 _ 정세균 국무총리, “재외동포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750만 재외동포의 손을 잡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한인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생업은 지장이 없으신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동포들에 대한 걱정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울 때 가족의 품이 더 생각나듯, 그리움만큼은 듬뿍 나누었으면 합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에 맞서며 우리 동포들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서 실천했습니다. 국내외 마스크가 부족하고 여러모로 어려웠던 지난 3월, 동포사회가 보내준 성금과 마스크로 모국의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뚝뚝 뭉쳐 취약계층에는 생필품을, 지역 요양원·경찰청·소방서에는 방역 물품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속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우리 동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도 동포들 곁에서 늘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항공기를 증편하고 전세기를 동원해 120개국에서 5만 명의 동포를 무사히 귀국시켰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동포들을 지원하고, 한인 입양인 가정에도 마스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동포들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재외공관에 영사서비스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고려인 동포에 대한 대우와 지원도 높이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입양인들의 현지 정착과 가족 찾기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우리 동포 출신이 네 명이나 당선된 것처럼 각 거주국 내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공신화를 쌓아가는 750만 재외동포의 손을 잡고,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을 넘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더 끈끈하게 뭉친 동포사회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함께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고국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손을 잡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대통령 축하 전문)



- 02 권두언 "이제 대한민국은 750만 재외동포의 손을 잡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04 특집 세계 각국 한인사회의 수장들 한자리에... 세계한인회장대회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 06 화제 문재인 대통령, G20회의서 "백신 공평 보급" 역설
- 08 초점 정세균 총리 화상 간담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동포 격려
- 10 글로벌 코리안 코스타리카 첫 한인 시장 김종관 케포스시장
무역의날에 훈장 받은 호주동포 김성학 대표
남북한 국악 접목해 보급하는 사할린의 신 율리아 학과장
- 12 한민족 공감 "재일동포들의 모국 공헌 역사를 초·중·고 교과서에 실어 알리자"
- 13 주목! 차세대 류현진 선수 통역 맡다가 e스포츠 업계로 전직한 마틴 김
- 14 동포소식 미국 징병등록증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는다 외
- 17 동포 캘린더 인도네시아 짜야짜아족 학생에게 한글 티셔츠 1천500장 선물 외
- 18 유공 동포 1 국민훈장 동백장 받은 재미동포 유미 호건 여사
- 19 유공 동포 2 일본 우토로마를 지켜오다 별세한 강경남 할머니
- 20 지구촌 통신원 1 흑인노예 역사 청산작업에 한창인 미국사회
- 21 지구촌 통신원 2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워챗' 새 바람
- 22 동포문학 오늘, 시드니
김인옥(호주)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김성곤 이사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과 환담 외
- 25 기고문 "250만 재외국민에게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심상만 2020·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 26 재단공지 2021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 안내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한인사회의 수장들 한자리에 세계한인회장대회,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재외선거 개선 촉구 등 6개항 결의문 채택... 최우수 운영 사례에는 인도한인회

전 세계 한인사회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11월 30일부터 나흘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렸다. 예년에는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전후해 500명 안팎의 인원이 모여 대규모 행사를 치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시기를 미뤘고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12월 1일 오전 열린 개회식 행사장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륙별·나라별 한인회장 가운데는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김정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원현희 마다가스카르한인회장, 유제현 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지난해 공동의장이었던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고문 등 6명만 자리했고 나머지 50여 개국 2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

올해 대회의 슬로건은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이었다. 개회식은 심상만 공동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문재인 대통령·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회심 간사·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의 축사, 주제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기조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코로나에 맞서며 우리 동포들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서 실천했



1

다”면서 “세계 속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우리 동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이어 “내년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사서비스와 동포 지원을 확대하고 한인 입양인의 현지 정착과 가족 찾기도 적극 돕겠다”면서 “정부는 동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나라별 시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전 세계 한인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희창 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K-방역’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현황과 함께 진단 키트 보급 등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인회 운영 방안’ 집중 논의

행사장과 전용 웹사이트에는 대법원 재외국민가족관계사무소, 병무청, 법률구조공단, 한인 관련 재단 등 유관기관의 상설 홍보관이 마련됐다. 11월 30일부터는 제4차 운영위원회와 지역별 현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가자



2



3

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인회 운영 방안'이란 공통 주제 아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대양주) ▲선전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안 준비 방안(미국) ▲코로나 취약계층 대책(아시아) ▲한일 관계 개선(일본) ▲동포사회 차세대 육성 방안(중국) ▲상호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중남미) ▲1세대와 차세대 간 거리 좁히기(유럽)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2일 열린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회에서는 미국 뉴욕한인회와 시카고한인회, 인도한인회, 과테말라한인회, 마다가스카르한인회 회장이 차례로 나서 코로나19 피해 한인 돕기 활동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인도한인회 활동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인도한인회 박의돈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회의 등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임시 특별기편으로 재외국민들을 귀국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 한인 밴드와 구글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밴드에는 한인 4천200여 명이 가입했는데, 많을 때는 하루 방문자가 1천여 명이 이르렀다. 광복절에 맞춰 개국한 한인회 온라인 플랫폼 나마스페 인도TV도 톡톡히 한몫했다.

심상만·주점식 공동의장 내년에도 연임

3일 오전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별 현안 토론의 주요 내용과 한인회 최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모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촉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모범을 지역사회로 확대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재외동포 전담부서 설치 촉구 ▲차세대 정체성 함양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6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내년도 공동의장은 올해 공동의장인 심상만 총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다시 맡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언택트 시대지만 전 세계 한인회장들과 더욱 더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4



5



6

1.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 심상만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3.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5. 인도한인회 박의돈 회장이 한인 소통 채널과 공유 플랫폼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6.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주점식 공동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 G20회의서 “백신 공평 보급” 역설 “세계 경제 불확실성 높아 국제사회 협력이 절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로 화상회의… 코로나19 공동 대응 약속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1월 21~22일 머리를 맞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G20의 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주재했다. 2008년 시작된 정례 G20 정상회의를 아랍 국가가 주최하기는 처음이다.

아랍 국가가 G20 의장국 맡은 것은 처음

1999년 창설된 G20의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세계 경제 생산의 약 80%를 각각 차지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맞

서기 위한 국제 협력이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의 모더나 등이 최근 백신의 임상시험 효과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G20 정상들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선도 발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 WHO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ACT-A) 등의 역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단행과 저소득국 채무 상환 유예 등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한국이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국경과 지역의 봉쇄 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를 이어간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한국판 뉴딜 계획을 소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제사



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G20 정상들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쉽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문 대통령, 부대행사에서 K방역 경험 소개

문 대통령은 제1세션 종료 후 살만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K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국민이 고안한 ' 드라이브 스루' 방식,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등이 효율적 방역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살만 국왕은 G20 정상회의 개최사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 및 진단 도구에서 이뤄진 진전에 낙관적"이라며 "모든 사람이 이런 성과물들에 알맞은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슨 영국 총리도 "영국은 어떤 백신이라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G20이 집단으로 나서서 그 노력을 지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효능 있고 안전한 백신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결정안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을 필요한 국가들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각국이 백신 개발, 연구, 생산, 분배의 각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가 새롭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G20이 발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일자리·지구 보존 등의 현안도 논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이 품위 있게 살고 일하는 조건 창출 ▲식량, 물 안보, 기후 등과 관련한 지구 보존 노력 ▲혁신과 기술 발전의 이점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 채택 등도 논의됐다.

이튿날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진단 기기와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하자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집중에 따른 영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선언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하고, 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 등에 관한 약속이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빈곤국들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 제약사들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첫날 "G20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20억 회분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

1.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을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3. G20 정상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G20 회원국 정상들의 합성 단체사진.
4.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5.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재외동포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되겠다”

정세균 총리 화상 간담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동포 격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23일 오후 화상으로 이뤄진 재외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재외동포 대표들과의 대화 자리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했다.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장, 이집트 한인회장,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 근로자, 러시아 사할린 한인협회장, 이민자 출신 미국 시의원 당선인, 재일동포 3세 인권단체 대표, 입양인 출신 스웨덴 국회의원, 베트남 청년 창업가, 중국국적 동포(조선족) 출신 기업인,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국제학교 교사 등 10개국 동포 11명은 각기 거주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진한 모국애 보여준 데 대해 감사”

정 총리는 우선 올해 초 한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동포들이 고국에도 성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진한 모국애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난 11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계 당선인을 배출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동포 사회가 저력을 보여주고, 경제·사회·문화 등 폭넓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정 총리는 “동포 여러분은 민간외교관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제는 모국이 재외동포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재외국민 편의 증진하겠다”

정 총리는 180개국 750만 재외동포 개인의 성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해 취약동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동포의 안전 확보를 정책





3

1.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23일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 외교부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장.
3.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을 격려하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4.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외동포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5. 국무총리와 재외동포의 화상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영사 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하고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사할린 동포의 역사적 상처 치유에 노력하겠다”

내년 1월부터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효된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말 징용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일본과 소련의 외면, 조국의 방치 속에 남겨진 현대사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당시 사할린은 일본이 점령한 상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러시아) 영토가 됐다. 정 총리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중심점이 될 ‘(가칭)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모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차세대 동포의 성장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후원자들과 힘을 합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해외이주 역사전시관, 내국인 청소년 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거점이자 내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개선과 차세대 동포 정체성 교육의 배움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세대 유대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간담회에 참여한 재외동포 대표들은 거주국의 코로나19 상황과 현지 당국의 방역 경험 등을 공유하며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취약 계층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거주국에서의 한인 정치력 신장 사례,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재외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히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총리실은 “언택트 시대 확산에 걸맞게 비대면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4



5



김종관 코스타리카 케포스시장

코스타리카 첫 한인 시장 김종관 케포스시장 1984년 정착해 철물점·호텔 운영하다 2월 당선

중남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케포스시 김종관(69) 시장은 지난 5월부터 시정을 이끌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첫 한인 시장이며, 중남미 전체로 따져도 페루 찬차마요의 정흥원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김 시장은 미국으로 이민했다가 여행차 들른 케포스에 매료돼 1984년 정착했다. 인구 3만여 명의 케포스는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인 코스타리카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해안도시다. 한국에서 하던 철물점을 이곳에 차린 김 시장은 2010년 마누엘 안토니오 공원 입구에 '산바다'라는 우리말 이름의 호텔도 지어 운영 중이다.

우리에게 케포스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케포스에서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다. 김 시장이 이민할 무렵이던 1983년 케포스 초등학교 한 곳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학교'로 개명하고 교정에 대형 태극기를 내걸었다.

케포스의 유일한 한인 가족인 김 시장은 한국 이름을 딴 학교가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한다. 그는 아들 이름도 '단군'과 '한국'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국민해방당(PLN)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검표 끝에 현직 시장을 49표 차로 제친 극적인 승리였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안타까워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상대 후보들은 김 후보가 외국 출신이라는 점을 공격했으나, 유권자들은 30년 넘게 시민 속에서 봉사하며 살아온 그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김 시장 4년 임기의 출발은 불행히도 코로나19와 함께였다. 관광 의존도가 90% 이상인 케포스는 어느 지역보다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 시장은 "재정이 악화했지만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면서 "36개 교량 건설과 도로 150km 포장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 걱정을 덜어주려고 버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역의날에 훈장 받은 호주동포 김성학 대표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겠습니다”

“30년간 해외에 살며 한국인이면 누구나 품게 마련인 애국심으로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김성학(58) 오스트레일리아에너지서비스 대표는 12월 9일 제57회 무역의날에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영화학그룹에 근무하다가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보기 위해 1990년 호주로 건너갔다. 1992년 영주권을 획득한 뒤 멜버른에서 무역업체를 설립하고 정착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전통 술, 차량운전자 보호대, LED 조명, 디스플레이 장비 등 다양한 모국 제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판매했다.

현재 조명기구 조립 공장, 포도 농장, 주류 유통업체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장치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분야 한국산 장비와 시스템을 호주 현지에 접목하는 일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호주가 협력할 수 있는 수소 경제 관련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한국 중소기업의 호주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월드옥타 멜버른지회장·감사·수석부회장을 거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통상대사, 민주평통 호주 멜버른지회장, 국립공주대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어도 한국산 차량이면 너그럽이 양보해주는 경험을 한번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어 ‘Made in Korea’ 제품 보급에 힘썼죠.”

김 대표는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모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겠다는 각오를 털어놓았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산 제품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덜 알려져 안타깝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데 힘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김성학 오스트레일리아인터내셔널서비스 대표

남북한 국악 접목해 보급하는 신 율리아 학과장 사할린 한국전통예술학과 25년째 이끈 공훈교사

러시아 사할린 에트노스예술학교에는 한국전통예술학과가 있다. 올해로 개설 25주년을 맞았다. 10년째 학과장을 맡고 있는 신 율리아 연체로브나(45) 씨는 이 학과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다.

“11월 20일 학과 개설 25주년 기념 공연을 마련하려다가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죠. 사할린주 여러 도시에 분교를 열어 더 많은 한인 후손에게 우리 전통예술을 가르쳐주는 게 꿈입니다.”

신 학과장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사할린 탄광에 끌려왔다. 사할린음악전문학교 4학년 때 에트노스예술학교에서 아코디언 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학과와 인연을 맺었다. 1995년 졸업 후 한국전통예술학과(당시 한민족학과)가 개설됐고, 초대 김순남 학과장의 권유로 교사가 됐다.

“처음엔 선생님들을 확보하고 악기와 의상 등을 구하느라 힘들었어요. 북한의 박정남·리수복 부부를 초빙했는데, 이들이 연주하는 가야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개인지도를 받다가 북한에서 2개월간 연수를 받았죠.”

2005년에는 서울예술대 교수들의 방문 공연을 보고는 남북한 전통예술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 놀랐다. 2007년부터 2년간 서울예술대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면서 전통 타악기를 익힌 뒤 돌아가 남북한의 전통음악을 통합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현재 한국전통예술학과에서는 교사 15명이 학생 140명에게 한국무용, 민요, 가야금, 단소, 장구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과에는 ‘도라지’ ‘아리랑’ 등의 무용단, 가야금 앙상블, 별거리 ‘태양’ 등의 타악기 앙상블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K팝 보컬팀도 결성했다.

이들은 사할린주는 물론 러시아와 한국 등지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 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공연을 펼쳤고, 이듬해 제15회 러시아 민족문화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에트노스예술학교는 ‘러시아연방 톱 50 예술학교’에 선정됐다. 신 학과장은 러시아 공훈교사 칭호를 받았다. **장**



신 율리아 사할린 연체로브나 에트노스 예술학교 한국전통예술학과장



“재일동포들의 모국 공헌 역사를 초·중·고 교과서에 실어 알리자”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 한 목소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은 12월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재일동포 모국 공헌 조명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재일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점들을 되짚어 보는 자리였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구홍 해외교포문 제연구소장은 기초연설에서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은 애초 농업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이를 제조업 등 2차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직언한 것이 재일동포 기업인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66년 설립된 구로공단은 경우 21개 입주사 가운데 3분의 2인 14개 회사가 재일동포 기업일 만큼 이들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의 모국 도입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재일동포가 바꾼 대한민국 역사와 그 평가’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일본 통일일보의 이민호 서울지사는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재외동포의 뒷받침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재일동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인물로 한국 섬유산업을 개척한 서갑호와 금융업 발전을 이끈 신한은행 설립자 이희건을 소개했다.

해방 후 일본에서 자수성가해 방적왕으로 불리던 서갑호는 1963년 한국 최대 방적회사인 방림방적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세웠고, 1973년에는 경북 구미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윤성방적을 세웠다. 서갑호는 1962년 도쿄(東京) 중심지에 주일한국 대사관 부지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일본 내 한국 공관 10개소 가운데 9개소가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됐다. 이 부동산들은 현재 시세로 2조 원이 넘는다.

1955년 재일동포 민족금융기관 오사카흥은(大阪興銀)을 세운 이희건은 1974년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를 결성한 데 이어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주최로 12월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재일동포 모국 공헌 조명 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1982년 신한은행 창립을 주도했다. “국부를 유출한다”고 호들갑 떠는 일본인들의 방해와 “한국에 투자하면 돈을 떼인다”고 걱정하는 지인들의 만류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이 지사장은 이 밖에도 재일학도의용군의 6·25전쟁 참전, 1960년대 수출입국의 토대가 된 구로공단 건설, 제주도예 감귤 묘목 보급, 1988년 서울올림픽과 IMF 외환위기 때 성금 모금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뒤, “재일동포들의 일편단심 모국 사랑을 인정하고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들의 공적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평식·김태웅·권오현 서울대 교수, 김웅기 한림대 교수, 이훈 이희건한일교류재단 고문, 박상규 재일한국인본국회장 등은 종합토론 순서에서 “모국에 도움을 줄 당시에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환영받았으나 지금은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면서 “오 히려 이제는 재일동포를 친일파나 ‘반(半)쪽발이’로 배척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

“미국 스포츠계에도 변화의 바람 불 것”

류현진 선수 통역 맡다가 e스포츠 업계로 전직한 마틴 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LA다저스에서 활약할 당시 그의 곁에는 늘 재미동포 마틴 김(42)이 있었다. 마틴 김은 류현진의 통역과 함께 구단의 국제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1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다. 마틴 김도 그라운드를 떠나 e스포츠기업으로 옮겼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 젠지(Gen.G)의 사업제휴 상무를 맡고 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중국계 여성 김 응이 북미 남성 스포츠 최초의 여성 단장이자 MLB 역사상 두 번째 아시아계 단장이 된 것처럼 미국 스포츠계도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던 프로야구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구성될 겁니다.”

마틴 김은 아르헨티나에 이민한 부모의 1남1녀로 태어났다. 10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했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국제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워싱턴 DC의 광고회사에 근무하다가 LA로 이주했다.

“부모님은 저와 늘 한국어로 대화하며 제게 한글로 읽고 쓸 것을 권유하셨죠. 아버지 고향인 강원도 강릉을 3년에 한 번씩 꼭 찾았어요. 세계 어느 곳을 다녀봐도 강릉 해변처럼 산과 바다, 소나무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의 모든 스포츠가 타격을 받고 있다. 리그 일정은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경기장에는 관중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e스포츠는 이런 칼바람을 비껴간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e스포츠는 코로나19에도 리그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라이브 행사 같은 큼직한 이벤트를 열지 못해 입장 수익이 줄어든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전체 게임 시장은 소폭 성장했습니다. ESPN 등 스포츠 채널들이 경기 중계에 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기회도 생겼죠.”



LA다저스 마케팅 담당을 하던 2013년 11월 방한해 기자회견을 하는 마틴 김

그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옮겨간 건 아니다. 그는 “다저스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았다”면서도, “프로야구가 한 세기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산업이다 보니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지만 정체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고, ‘내 힘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긴 힘들겠구나’ 하는 한계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e스포츠는 야구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야구는 경기당 3시간이 넘게 걸리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고객으로 삼는 반면 게임은 단시간에 승부가 나고 20대 전후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저스 시절과 마찬가지로 김 상무는 젠지에서 한·미 양국의 가교 구실을 한다. 두 달에 한두 차례는 꼭 한국에 들렀지만 지난 2월을 끝으로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워졌다. 그는 “한국은커녕 부모님이 계신 필라델피아도 찾지 못했다”면서 “단골집이던 LA 한인타운의 작은 가게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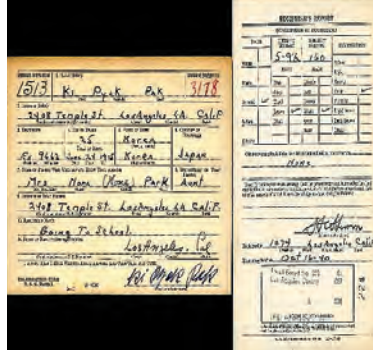
미국 징병등록증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는다

보훈처, 가족관계 등 담긴 한인 1천589명 문서 분석

일제강점기 미국 정부가 작성한 한국인 징병등록증으로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연방정부가 작성한 미주 한인 1천 500여 명의 징병등록증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징병등록증은 1917년 5월 미국 연방의회가 승인한 '징병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18~45세의 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보훈처는 1917~1918년과 1940~1945년 당시 미국에 거주한 한인 남성의 징병등록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 해외사료 수집위원인 브랜든 팔머 코스탈 캐롤라이나대 교수는 보훈처 의뢰를 받아 1천589명의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수집했다.

징병등록증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는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 학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박기범 선생의 징병등록증.

력까지 담겨 있어 가족관계가 불분명해 건국훈장을 대신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6천410명 중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는 332명이며, 이 가운데 178명이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징병등록증 분석 과정에서 2017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정등업 선생과 1998년 애족장을 받은 박기범 선생의 정보가 확인됐다.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은 “미주 한인들은 징병등록증에 자신을 ‘한국인’으로 기재해 일본 식민지 신민이 아닌 독립국 한국의 국민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립운동사와 미주 한인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옥타, 킨텍스서 ‘글로벌 비즈니스 페스티벌’

국내 중소기업들과 700만 달러 규모 비대면 수출 상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1월 18~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0 글로벌(global+local) 비즈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비대면 수출상담회, 통상위원회별 바이어 클럽 쇼케이스, 2020 베트남·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온라인 환경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전국 10개 테크노파크(TP) 소속 지역 기업 39개사, 완도군 소속 3개사, 중소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 수출상담회에서는 월드옥타 회원 기업과 33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액수는 모두 700만 달러(약 78억 원) 규모로, 12건(250



국내 중소기업들이 월드옥타 회원사들과 온라인으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다.

만 달러)은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고 92건(470만 달러)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첫날 킨텍스에서 열린 베트남·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설명회에서 김석운 베트남경제연구소장은 “베트남은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해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치안이 안정돼 지속가능한 투자진출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유진 코트라 경제협력총괄팀 과장과 정선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글로벌 지역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40여 년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성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국 기업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동포 작가 최돈미·유미리, 전미도서상 동반 수상

시집 'DMZ 콜로니'와 소설 '우에노역 공원 출구'로 영예 안아

재미동포 최돈미와 재미동포 유미리가 미국 최고 권위의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s)에 나란히 뽑혔다. 한국계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전 최가 지난해 소설 '신뢰 연습'으로 수상한 데 이은 연속 기록이다.

미국도서재단은 11월 19일 온라인으로 제71회 전미도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돈미는 시집 'DMZ 콜로니(Colony)'로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미리는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를 번역한 'Tokyo Ueno Station'으로 번역문학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한 최돈미는 현재 시애틀에서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김혜순 시집 '죽음의 자서전'을 번역해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과 미국문학번역가협회 루시엔



재미동포 시인 최돈미(왼쪽)와 재미동포 소설가 유미리

스트릭상을 받았다. 김혜순 시집 '전 세계의 쓰레기여, 단결하라!'로도 루시엔 스트릭상을 한 차례 더 받았다.

'DMZ 콜로니'는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한 시집이다. 비극적인 분단 현실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와 부친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유미리는 소설 '가족 시네마'로 1997년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일본 문단의 중견이다. '타일', '루주', '8월의 저편' 등을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우에노역 인근에서 노숙자로 살다 죽은 뒤에 여전히 근처를 떠도는 남자의 영혼을 통해 가혹한 도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에는 2015년 '우에노역 공원 출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호주 시드니서 '독도의 날' 기념 사이클대회

폭염 속에 페달 밟으며 '독도는 우리 땅' 홍보

11월 29일 호주 시드니 올림픽파크 인근 바이센티널 공원에서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사이클대회가 열렸다.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각 개최된 것이다.

대회장에는 사이클 선수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과 시드니 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모여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등 구호를 외치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 개막 전 행사로 시드니한인회 풍물패 '터울림'이 흥겨운 풍물놀이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이클대회 참가자들은 '독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입고 자전거 앞쪽에 호주 국기와 태극기를 꽂은 채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한국인 친구를 따라 '독도의 날' 기념 사이클대회에 참가한 호주인 앤드루 컬란 씨(왼쪽).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대회장을 찾은 정광철(41) 씨는 "18년 전 호주에 온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잊고 살았다가 기억을 되살려 참가했다"면서, "딸들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친구를 따라 동참한 호주인 앤드루 컬란(33) 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야외 행사여서 기분이 상쾌하다"면서, "독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의 고동식 회장은 "매년 독도의 날 기념 음악회를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행사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면서, "40°C를 넘는 무더운 날씨지만 시드니 독도 지킴이들의 열정과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 과학기술자 1500명, 온라인으로 학문간 융합 모색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최 '2020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조술연)는 12월 14~17일 '2020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0)'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한국과 미국 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학술대회인 UKC는 첨단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콘퍼런스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회장 이우일)와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이사장 노정혜)가 공동 개최한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을 융합하다'란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자, 기업인, 정책결정자,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2017



조술연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이 화상으로 UKC 참가자들에게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

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배리 배리시 캘리포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어 사이먼 페니 캘리포니아대(UC) 어바인캠퍼스 교수, TV 시리즈 '심슨 가족' 감독을 맡은 척 시츠 UCLA 교수, 래리 콕 시티오브호프 병원 부원장, 권상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댄 테오도레스크 시다스 사나이어 메디컬센터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12개 테크니컬 심포지엄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 창업 경진대회, 대학 총장과 여성과학기술자·차세대 전문가·과학외교·서울시·산업진흥기술원·교통연구원 등이 마련한 포럼 등도 진행됐다. KOFST와 공동으로 여는 과학외교 포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인 에릭 구스비 UC샌프란시스코 교수가 참여했다.

태국한인회 '코로나 재난 키트' 나눔 행사 마무리

생활고 겪는 한인들에게 5월부터 매달 식료품 전달

12월 3일 태국 방콕 수쿰윗가의 한인타운에서는 '재난 키트' 나눔 행사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방역용 마스크를 비롯해 쌀 5kg 두 포대, 라면 20개, 김치, 고추장, 된장, 어묵, 떡볶이, 김 등이 들어 있었다.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한인을 돕기 위해 주태국한인회가 주태국 한국대사관, 한·태 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태국지회, 식당·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일부 한인의 지원을 얻어 마련한 것이다.

유통 사업을 운영하다가 태국인 직원 4명도 내보내고 힘겹게 지낸다는 이모 씨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막막했는데, 쌀과 라면이 이렇게 도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는 "태국에서 20여 년 사는 동안 이번처럼 한인회나 대



주태국한인회가 방콕 한인타운에서 '재난 키트'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사관 등이 고맙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었다.

한인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해진 4월 수요 파악에 나선 뒤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8차례에 걸쳐 나눔 행사를 벌였다. 방콕에서 모두 620가구(중복 포함)가 신청했다. 치앙마이(150가구), 푸켓(40가구), 파타야·라용(700가구) 등지에서도 현지 한인회나 우리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백상규 한인회 부회장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로 올해 나눔 행사를 끝내야 한다는 게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하태욱 총영사는 "올해 말로 한인회 집행부가 바뀌지만 대사관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재단 기금을 활용해 내년 2월까지의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인도네시아 짜아짜아족 학생에게 한글 티셔츠 1천500장 선물

인도네시아 자카타 외곽 땅그랑에서 봉제회사를 운영하는 서광호 금광섬유 대표는 솔라웨시주 부톤 섬의 짜아짜아족 학생들에게 한글 티셔츠 1천500장을 선물했다. 서 대표는 기능성 천을 구매해 한글로 '짜아짜아 한글학교' 라고 새긴 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을 수 있도록 여러 사이즈로 만들어 전달했다. 문자가 없어 2009년 한글 표기를 채택한 짜아짜아족 초등학생은 주 1회 짜아짜아어를 한글로 표기된 교재로 배우고 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는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다.



정이스작 감독 영화 '미나리', 보스턴비평가협회 2관왕

재미동포 2세 리 아이작 정(정이스작)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윤여정)과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덴버 국제영화제 관객상과 최우수 연기상(스티븐 연),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상, 하트랜드 영화제 관객상과 지미 스투어트 공로상 등을 차지하며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 아카데미영화제 입상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정 감독의 자전적 영화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참전용사 초청해 송년 오찬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12월 9일 웰링턴 지역 거주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송년 오찬을 열었다. 메카 와이티리 보훈장관을 비롯해 뉴질랜드 외교부와 보훈처 관계자, 참전용사, 한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한국의 발전과 긴밀한 양국관계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사의를 표했다. 와이티리 장관은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면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계승해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재외한인학회 학술상에 '독립군과 무기'의 박환 교수

재외한인학회(회장 송석관)는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에게 학술상을 수여했다. 박 교수가 5월 펴낸 '독립군과 무기'는 100년 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사용했던 무기의 종류·구입 대상·운반 경로·보유 현황 등을 망라해서 기술한 책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재외 한인 관련 연구 서적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박 교수는 서강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연구이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5년에는 독립기념관 학술상을 받았다.

브로드웨이 한국계 스타들, 유튜브에서 송년 콘서트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은 12월 17일 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한 한국계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송년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국 남성 배우로는 처음으로 공연한 황주민, '왕과 나'에서 열연한 임규진, '미스 사이공' 미국 브로드웨이 투어에서 활약한 정진우, 한인 입양아 출신으로 '왕과 나' 미국 투어에 출연한 대니얼 에드워즈, E.J. 짐머맨, 임오셉, 강동우 등 7명이 출연해 유명 뮤지컬의 명곡을 들려주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상공회의소 '브라질 경제 동향 세미나'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은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승주)와 공동으로 12월 2일 '브라질 경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나와 브라질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환율 전망, 노동법규 위반 사례, 전자상거래 현황 등 4개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브라질 진출 기업 관계자와 한인 동포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브라질 정부의 개혁법안 추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에서도 3분기에 눈에 띄는 경제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민훈장 동백장 받은 재미동포 유미 호건 여사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으로 한미 우호와 동포 권익 신장에 기여

11월 24일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 정부의 수훈식이 열렸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한국명 김유미·61)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달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 5등급으로 나뉜다. 동백장은 3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아 호건 여사를 비롯한 유공 동포 25명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주국 공관에서 각각 수훈식을 개최했다.

이 대사는 "호건 여사가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서훈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올해 메릴랜드주가 50만 회분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긴급 공수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 차원의 '태권도의 날'(4월 5일) 지정, 코리아타운 건설, 한국전 참용사를 위한 기념식 마련 등도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호건 여사는 훈장을 받은 뒤 "다양한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들한테 모이고 한국 문화와 유산의 가치, 그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을 내 임무로 삼았다"면서 "이 훈장은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성공을 기리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호건 여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80년 첫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딸 셋을 낳고 하와이·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서 살다가 이혼 후 메릴랜드주로 이사했다. 미국 시민권은 1994년 취득했다. 2001년 미술전람회에서 부동산업자이던 래리 호건 주지사를 만나 2004년 재혼했다. 메릴랜드 예술전문대와 아메리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추상 풍경화로 유명한 동양화가이자 메릴랜드 미술대학(MICA)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호건 여사는 아시아 국가들과 메릴랜드주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아시아계 권익 향상 비영리단체



유미 호건 여사가 11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유미 호건 여사, 이수혁 주미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유미 호건 여사 부부가 4월 18일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나가 한국에서 도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인터내셔널리더십재단(ILF)으로부터 '영감을 주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건국대에서 명예미술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호건 여사보다 세 살 위의 호건 주지사는 한국에서 '호서방'이란 애칭으로 통한다. 본인도 '한국의 사위'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1992년 메릴랜드 제5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쓴잔을 마셨다. 재혼 후 부인의 도움을 얻어 2014년과 2018년 연거푸 주지사에 당선됐다. 호건 여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자 메릴랜드주 최초의 아시아계 퍼스트레이디라는 기록을 세웠다. **[창]**

일본 우토로마을 지켜오다 별세한 강경남 할머니

강제 퇴거 조치 막는 데 앞장... 5년 전 MBC '무한도전' 에도 출연

MBC 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2015년 9월 5일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배달의 무도 시리즈-일본 우토로마을 편'을 방송했다. 이 특집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토로마을은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이세다초(伊勢田町)에 속하는 동네로,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 교토 군 비행장을 짓는 공사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근로자 1천300여 명이 거주하면서 조성됐다. 일본이 패전한 뒤 비행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조선인들은 실업자로 전락했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다.

당시 이곳을 찾은 출연진 유재석과 하하는 징용 1세대이자 최고령 우토로 주민인 강경남 할머니를 만나 "저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 9살에 일본으로 건너와 평생을 차별과 박해 속에 살아온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자 제작진 모두 눈물을 쏟았고,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다.

5년 전 안방극장에 감동을 선사한 '우토로마을의 산 증인' 강경남 할머니가 11월 21일 별세했다. 장례식은 24일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나 고인이 살던 집에 빈소를 마련해 49재 때까지 조문을 받고 있다. 오태규 오사카총영사도 25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1925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먼저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를 따라 1934년 어머니와 함께 오사카(大阪)로 이주했다. 1943년 결혼한 뒤 이듬해 미군의 공습이 본격화하자 남편과 우토로마을로 옮겨 살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찾아뵙기, 고철 모으기, 청소 일 등을 닦치는 대로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우토로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우토로마을의 산 증인 강경남 할머니

1940년대 초창기 우토로마을의 모습.

낙후한 환경이었지만, 동포들은 학교를 세우고 민족 명절을 쇠며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학교를 폐쇄하는 등 동포들을 핍박했고, 1987년에는 몰래 매각을 추진해 동포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고인은 마을 주민과 힘을 합쳐 우토로마을 지키기에 나섰다. 한복을 입고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철거반원들을 태운 차량이 오자 마을 입구에 누워 "나를 깔아 죽이고 가라"고 외쳤다. 오사카, 교토, 나고야(名古屋)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일본과 모국의 동포들이 지원과 연대에 나섰다. 잇따른 법정 다툼 끝에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독지가들이 성금을 모아 우토로마을에 전달했다. 이 성금으로 2011년 땅을 구입해 2018년 150여 명의 주민이 이주했다. 마을 옛 모습은 사라졌으나 바로 옆에 우토로평화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곳에 전시할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장]

흑인노예 역사 청산작업에 한창인 미국사회

노예 소유주 이름 딴 학교 개명... 바이든 대통령, 흑인 대거 발탁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학생·교직원과 지역 주민 등 약 3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토머스 제퍼슨과 조지 메이슨 이름을 딴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이다. 메이슨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쓰고 버지니아 식민지의회 대표를 지냈다. 둘 다 미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흑인 노예를 부린 지도자라는 멍에를 쓰고 있다.

교명 변경 추진은 지난 5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여파였다. 설문조사 결과 56%가 교명 변경에 찬성했다. 일부 학생은 노예 소유주 이름을 딴 학교에 가는 게 불편하고 소외감이 들게 한다고 답했다. “당시엔 노예 소유가 일반적이었기에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폴스처치 교육위는 12월 8일 만장일치로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와 조지 메이슨 고등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레그 앤더슨 교육위원장은 “많은 학생, 학부모, 직원, 지역 주민이 제기한 견해와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학교는 모든 학생과 직원, 지역 주민이 지지를 받고 영감을 얻는다고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2020년 7월 1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끈 스톤월 잭슨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

과거 흔적을 조용히 지워나가고 있다. 프 로야구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지난해 붉은 인디언(원주민) 추장 얼굴을 형상화한 마스크트를 없앤 데 이어 팀명도 바꾸기로 했다.

12월 8일과 11일 연방 하원과 상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공화당이 찬성했다. 이 법안에는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군사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부연합은 남북전쟁 때 노예제를 옹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거의 백인 일색이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주요 직위에 포진시키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의 흑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

부 장관에 지명했고, 흑인 여성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국내 정책 현안 최고 조정자인 국내정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흑인 여성인 외교관 출신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와 마르시아 퍼저 하원의원은 각각 유엔주재 대사과 주택·도시개발장관에 낙점됐다.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라틴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앉히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영향력을 지닌 흑인 여성 1천여 명은 12월 7일 공개서한을 통해 “흑인 여성과 흑인 미국인이 바이든 당선자의 핵심이었듯이 우리는 차기 행정부의 성공과 비전 구현의 열쇠”라며 “우리 공동체는 그런 우리의 중요성을 인정해 요직에 반영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상헌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위챗' 새 바람

신세대 호응 얻어 알리바바 위협... 코트라도 한국상품관 개설

알 리바바(阿里巴巴)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微信)의 샤오청쉬(小程序·미니 프로그램)가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론칭 이후 누적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다. 시장 규모 역시 올해 11월 기준으로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넘어섰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의 장점은 알리바바나 징둥(京東) 등 기존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채팅 앱인 위챗 안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설치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편리성은 '주링허우'(1990년대 이후 출생)와 '링링허우'(2000년 이후 출생) 등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과 맞아 떨어져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위챗 머니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처럼 온라인 친구들과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다. 판매자와의 소통도 채팅 앱을 기반으로 즉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보다 강점이 있다.

현재 위챗 안에서 운영되는 미니 프로그램은 1천400만 개로, 주로 소비금액이 1천 위안(약 17만 원) 이하인 인스턴트 쇼핑이 주요 타깃이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미니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국 시장 공략에 총력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 초기 화면.



코트라가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개설한 한국상품관.

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위챗과 연동된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챗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YDH'를 운영 중인 추이광르(崔光日) 대

표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알리바바 입점을 목표로 하는데, 기존 플랫폼에 입점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마켓 형태의 기존 플랫폼은 입점 후 마케팅을 통한 모객, 유사 제품과의 경쟁 등이 중요한 성공 요소인 데 비해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분명한 구매 목적을 지닌 소비자를 타깃으로 마케팅하기 용이하고, 기존 고객을 통한 지인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간 제휴를 통해 기업간거래(B2B)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도 미니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제휴 쇼핑몰이 늘어나면 도매업 형태로 미니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도 점차 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코트라가 론칭한 미니 프로그램 '한국상품관'에는 우수 중소기업 126개사가 입점해 상품 판매와 홍보를 하고 있다.

코트라 중국본부 미니 프로그램 담당 오정훈 과장은 "지난 9월 론칭한 이후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상품관에 배포된 홍보물을 보고 비즈니스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150건을 넘어섰다"면서 "별도의 설치 과정이 없고, 위챗 페이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구매가 진행돼,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

김진방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오늘, 시드니

김인옥(호주)

또 한 명 사망자가 늘었다

시드니 날씨는 비가 오고 방금 어깨를 적신 뉴스
죽음이 따라붙을까 실업이 옮겨 붙을까
뒷걸음치는 이역만리

하릴없이 묶여 있는 식당 문
초만원 한글메뉴에 얹힌 영어발음과 살아온 땀
세어보는 밥알 수가 그토록 일품이었다니
시드니 날씨는 어제도 비 이럴 때 이 많은 하강이라니

호주머리에 빗 다발 안은 포즈로 찾아 나선 센터링*
키가 한 뼘 줄어든 청년 등이 한 줌 굵은 중년
사이에 생략된 모닝커피
줄 밖에서 있는데 어느새 거기도 줄이 되어버린
줄 앞에 새우잠 쪼그리고 앉은 네가 있고
줄 뒤에 내가 서 있다
빨간 새벽
센트럴 역 한복판에서 바빠 내리고 타는 사람들
다 여기 서 있다

센터링크는 아직 열릴 시간 아니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지구 언저리
햇살 한 자락 추임새로 넣어보지만
고국과 이국이 다시 그 안과 밖에서 어느 곳이나
들리는 건 침방울
오전 중으로 접수창구에 다다를 수 있을지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폭우가 잠시 끊어졌다
비의 뿌리에 섞여 무지갯빛 차례가 왔다면
함께 살아갈 이름의 날들을 위해선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2미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창**

*사회복지 지원센터.

바른 말 고운 말

'주책'은 있어야 좋을까, 없어야 좋을까?

실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어떤 사람을 화제로 삼아 여럿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명이 “주책없는 사람 같으니라고”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맞장구치며 “그러게 말이야. 정말 주책이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주책이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주책이라고 하니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주책’은 한자어 ‘주책(主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줏대가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변해 ‘주책’으로 굳어졌지요. ‘주책이 없다’고 하면 ‘일정한 주견이나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실없다’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주책’은 있어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쓰임새가 변해 ‘주책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주책이다’라거나 ‘주책맞다’라는 말도 자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현실을 인정해 2017년 1월부터 모두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두들기다'와 '두드리다'

“이번 시험 성적 나왔지?”, “형편없어. 그래도 선생님께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힘을 내라고 하셔서 용기를 얻었어.”

성적이 나쁘게 나온 학생을 위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는 선생님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에 부적합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두들기다’라는 표현이 잘못 쓰인 겁니다.

‘두들기다’는 ‘두들겨 패다, 두들겨 맞다, 복어를 방망이로 두들기다’처럼 ‘함부로 마구 때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어깨를 두들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들기다’ 대신 ‘두드리다’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다, 어깨를 두드리다’처럼 ‘여러 번 툭툭 친다’란 뜻을 담고 있지요.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오른쪽 방향 열쇠

-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반쪽.
-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 등을 한쪽에 담가 두는 일.
- 겨울에 자주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염증성 질환. 콧물과 기침과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죠.
- 쇠를 끌어당기는 물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이 있어 지남침이라고도 하죠.
-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 산에서 벌이는 싸움.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흔히 ‘○○수전 다 겪었다’고 하죠.
- 원소 기호 C.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죠.
- 여름을 알리는 전령. ‘맘맘맘’ 하고 울죠.
- 배탈이 났을 때 누는 뒹은 똥.
-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
-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 책이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일.
-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 ‘시위대가 도로를 ○○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산 좋고 물 좋고 ○○ 좋은 데 없다’는 속담이 있죠.
-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림.
- 말린 명태. 해장국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죠.
-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 아래쪽 방향 열쇠

- 중국의 글자.
- 초(楚)나라와 한(漢)나라가 싸우는 놀이. 장군명군.
- 한글 자모 ‘ㄱ’의 이름.
- ‘디아스포라’의 우리말로 헤어져 흩어진다 뜻. ‘남북 ○○가족 상봉’
-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화석연료. 탄화 정도에 따라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따위로 나뉘죠.
- 여자끼리의 언니와 아우. 어떤 지역이나 단체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을 ‘○○결연을 한다’고 하죠.
-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 따라 삼천리’
-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이 자자하다’
- 아이를 낳은 여성이 많이 끊어 먹는 국의 재료. 시험에서 떨어질 때 ‘○○국을 먹었다’고도 하죠.
- 카메라로 사물을 찍으면 나오는 것. 그래서 카메라를 ‘○○기’라고도 하죠.
-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 ‘○○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 낱말의 뜻과 용법 등을 해설한 책. ‘국어○○’, ‘영한○○’
-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수입’의 반대.
- 나쁜 점. 장점의 반대.
-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일.
- 나무, 구리, 돌 등으로 찍어낸 그림.
- 심장생의 하나. 토끼와의 달리기 경주에서 이긴 동물로 유명하죠.
- 무엇에 열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2020년 11월호 정답

양궁		축구		국화	
권투	구정당		가재		
비상구		근본	채기		
	절구		보자		
광복절		소고기			
장		지식		연주	
태권도		소금		사	
입투		대문		가위	
동지		방학		악수	

김성곤 이사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과 환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2월 4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김선미 총회장을 접견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하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한글학교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선미 총회장은 "2021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NAKS는 오늘 날 14개 지역협의회에 약 1천 개 한글학교를 거느린 단체로 발전했으며,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확대와 교육 표준화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외동포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재단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했다.

김 이사장은 창립 40주년을 축하한 뒤 "앞으로 NAKS가 우리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2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 재단본부에서 김선미 NAKS 총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한글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동포 경제인 교류 마당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재외동포재단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2020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외동포 관련 행사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나,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32개국 140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재청

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후 참가자 기업 소개, 지역별 현안 토론, 지식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는 기존의 사업 추진 형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여러 이슈에 대해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포럼에 참가한 차세대 동포 경제인들이 열린 사고와 전문 식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미텍스포럼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

재외동포재단은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이사장 김석오), 한미텍스포럼(회장 앤드루 리)과 함께 12월 10일 웹엑스(Webex) 온라인 미팅을 활용해 '2020 글로벌 비즈니스 세

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미국·인도·브라질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의 이동제한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경제 흐름 예측 및 분석,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국제 마케팅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250만 재외국민에게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심상만

2020·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세월은 빨리도 지나가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2020년 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재외국민 선거 관심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놓고 대륙별로 심층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참여도를 높여야겠다는 판단에서 아시아한인총연합회 산하에 21대 총선 추진부를 결성해 주요국별 투표 독려 방안을 세웠습니다. 재외국민 1만 명 이상 지역은 회장단 직접 방문, 1만 명 이하 지역은 주 2회 유선 독려, 1천명 이하 지역은 주 1회 유선 독려한다는 원칙 아래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7개국 10개 지역을 돌며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주간 단위로 아시아 25개 공관별 총선 선거인 등록 현황을 점검하며 부진한 지역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륙들은 20대 총선 때의 등록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아시아 지역은 20대 총선 때의 등록 대비 24%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월 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발생해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아시아 상당수 지역의 거리가 봉쇄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은 2009년 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행사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2019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도 ▲투표소 확대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한 10개 대륙별 한인회(대양주, 러시아·CIS,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유럽, 일본, 중국, 중남미, 캐나다) 회장단 일동은 현행 투표 방식으로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편 투표 및 전자 투표 등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륙별 대표회장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 방법 개선을 위한 서명부'에 모두 서명했으며 각국 한인회장들에게도 심상만·주점식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명의로 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은 뒤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및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님들은 저와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에 2021 대회까지 공동의장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내년에는 6개월의 결의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



2021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 안내

1. 신청 대상: 전 세계 재외동포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 국내외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 전통문화용품 지원

한인단체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사업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 코리아타운 활성화 사업 /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사업 /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3. 일정(한국 시간 기준)

- 단체 신청: 2020. 11. 24(화) ~ 2021. 1. 12(화)
- 공관 검토: 2021. 1. 13(수) ~ 2021. 1. 27(수)

4. 방법 및 절차

- 재외동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n.net>)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단체장 서명해 거주국 관할 공관에 제출

5. 사업별 관련 문의

- 홈페이지 안내문 하단 '2021년 지원대상 사업' 리스트의 담당자 연락처 참고

6.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문의

- 전화: +82-64-786-0295(한국 시간 기준 09:00~18:00)
- 이메일: pms01@okf.or.kr

7. 별도 수요 조사 시행 예정 사업

-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 재일민단 지원(비민단 단체 포함)
 - ※일본 지역의 금번 수요 조사 대상은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용품 지원만 해당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2020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 및 2021년 현황조사서 제출 관련 문의: ec_support@okf.or.kr
-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우리가 몰랐던 북간도 독립운동 이야기

이옥희(바이북스)

북간도 지역은 우리에게는 잊힌, 안타까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개신교 선교사인 저자는 3년간 이 일대를 누비며 증언과 사료를 수집한 뒤 북간도 독립운동의 태동부터 청년 투사들의 희생까지의 역사를 가슴과 발로 기록했다. 한반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어느 지역보다 뜨겁게 분출했음을 느낄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며 오늘날 우리 모습에 비추어 보자.



이다. 그러나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해 희망보다는 좌절을 안고 살아간다. 유미리는 '가족'을 벗어난 이들을 직접 취재하며 작품 구상부터 탈고까지 12년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우에노역 노숙자들을 통해 현대사회의 민낯을 만나보자.



우에노역 공원 출구

유미리(기파랑)

미국 최고 권위의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s) 번역문학 부문 수상작이다. 재외동포 2세 유미리의 소설을 김미형이 우리말로 옮겼다.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돈벌이를 위해 상경한 사람들이 첫발을 딛는 곳

신뢰 연습

수전 최(왼쪽주머니)

지난해 한국계 최초로 전미도서상을 차지한 수전 최의 소설을 공경희가 번역했다. 뉴욕타임스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올해의 책'으로 꼽았다. 예술고등학교 연극과 학생들의 '신뢰 연습' 시간. 서로를 믿도록 만드는 훈련이지만 동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를 배경으로 세 여성 인물의 성장기를 따라가며, 권력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와 과거가 의식 안에서 오버랩 되는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 사건과 심리의 안과 밖을 조명한다.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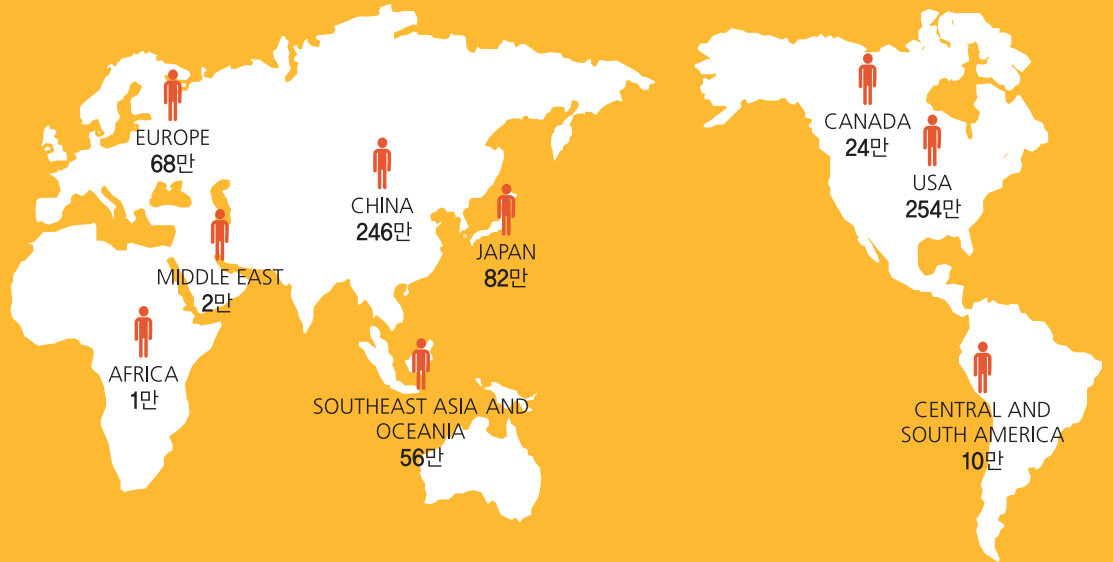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